

# 여성낙농인의 힘으로 낙농 불황 극복한다!

이명규 여성분과위원장

“홍보요원화 교육을 통해 여성낙농인 하나 하나가 우유홍보대사 되어 우유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유소비홍보를 하지 못한 데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원유 체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여성낙농인 홍보요원화 교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명규 여성분과위원장을 만나 우유소비촉진 대책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유업체도 낙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의 소비홍보 효과를 함께 누려왔잖아요. 뒤에서 방관하고 있던 유업체들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자조금에 참여해 우유소비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규 여성분과위원장은 생산에만 충실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우유소비촉진활동에 여성낙농인들이 적극 뛰어들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002년 이전에는 낙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즉 우유를 생산하기만 하면 유업체들이 모두 가져가는 형태였지요. 그러나 2002년 이른바 ‘우유 대란’으로 원유수급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낙농가 스스로 우유소비 홍보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직원들과 함께 솔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우유소비촉진활동을 했으며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우유소비 홍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 이명규 위원장은 “여성낙농인들 스스로가 ‘우유홍보요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우유홍보교육을 이수한 후 현장에 나가 소비자들에게 우리 우유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목장일에 가사일까지 겸비하면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

는 여성낙농인들이 우유 소비에 앞장서는 만큼 이제는 유업체들도 이러한 소비홍보에 적극 동참할 때라고 말하는 이명규 위원장.

“유업체도 낙농가들이 조성한 자조금의 소비홍보 효과를 함께 누려왔잖아요. 뒤에서 방관하고 있던 유업체들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자조금에 참여해 우유소비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성들의 배려 또한 꼭 필요하다. 이명규 위원장은 남성들이 여성낙농인들의 대외활동을 막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성낙농인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도 요구했다. 여성낙농인이 우유홍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협회와 자조금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지자체 가을 축제 등에서 우유소비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